

“거점 공공병원·지역책임의료기관, 더 큰 역할 맡아 나가겠다”

✎ 이경훈 인턴기자 | ㉠ 승인 2022.05.02 10:14

통영적십자병원 지역책임의료기관 선정...국·도비 지원
심뇌혈관센터·필수 진료과목 신설 위해 이전·신축 必
앞 다가온 부지 결정, 3~4개 후보지 놓고 심사숙고



“통영적십자병원은 과거 국민병원으로 불렸듯이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공공병원이다. 생명을 살리는 일, 우리 병원이 존재하는 이유다. 시민 여러분의 큰 관심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많은 사람들로 줄을 잇던 선별진료소에도 조금의 여유가 보인다. 코로나 확산세가 조금 꺾이는 시기, 통영적십자병원 조영철 원장(통영시내과의사협의회 회장)을 만났다. 조 원장은 16년 전 공중보건의로 통영적십자병원에 첫발을 내디뎠다. 그는 지난 2017년 병원장으로 취임, 2020년에는 감염병 예방 업무에 크게 기여한 공로로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여 받았다.

통영적십자병원은 지난 2020년 3월 마산의료원과 더불어 경남도에서는 유일하게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지정됐다. 이후 선별진료소 시행, 코로나 환자 대면 진료, 재택치료자 비대면 진료, 코로나 치료제 처방, 폐렴환자 치료 등 공공병원으로서 소명을 충실히 이어 왔다. 특히 조 원장은 1내과 과장을 겸하고 있기에 지난 2년간 진료현장에서 직접 힘을 쏟아 냈다.



통영적십자병원은 지난 3월 21일 '2022년 지역책임의료기관'에 최종 선정됐다. 지역책임의료기관은 매년 국·도비 각 4억8천만원을 지원받아 양질의 필수의료 제공과 각 진료권 내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의 중심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조 원장은 “경남도가 심뇌혈관 질환 사망률 1위인 점, 우리 병원이 통영·거제·고성 권역 공공병원인 점이 타당하게 여겨져 승인됐다”고 설명했다.

거점 공공병원인 통영적십자병원의 경우 이전·신축 비용, 의료장비 구입 비용까지 지원되는 상황, 문제는 아직 부지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지난해 9월 통영적십자병원은 '제1차 통영적십자병원 이전신축 예정부지 선정위원회'를 개최, 지자체·병원·국회·시의회·전문분야 관계자들을 위원으로 구성해 후보지를 검토했다. 위원으로 참여한 조 원장은 "이전신축 후보지로 통영여객선터미널 부지, 도천동 7번지 일원(시립박물관 뒤 언덕), 무전동 22 외(미늘고개 일원) 총 3개 안이 나왔다. 여객선터미널 부지는 사실 꽤 오래전부터 이전 추진을 고려해온 곳이다. 정점식 국회의원이 항만법 개정안을 발의, 안이 통과돼 병원이 들어설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지만, 이후 해수부·경남도·통영시·적십자사 관계자들이 모인 회의에서 공간이 협소하고, 주변이 더욱 번잡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시립박물관 뒤 언덕은 최근 해당 부지에서 고지도가 발견, 이순신 장군의 사직단이 근처에 묻혀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오는 6월 문화재 발굴을 추진할 예정이다. 미늘고개 일원은 1만평 이상으로 아주 넓지만 송전탑, 고압전선, 산불진화 헬기장 등 유해요소 때문에 아쉬운 점이 있다. 결국, 3개 후보지 모두 애매한 상황라고 설명했다.

다른 대안으로 북신동 공설운동장을 추천하는 일부 목소리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조 원장은 "현재 공설운동장 부지를 과거 박삼강님께서 통영시민의 건강을 위해 사용해달라는 당부와 함께 기증하신 것으로 안다. 그 취지에 맞게 통영시 대표 운동장으로서 잘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더 먼 미래를 내다본다면, 이곳에 중증응급기관을 갖춘 거점 공공병원이 생기는 것도 기증자의 뜻을 거스르지 않은 채 통영시민에게 큰 유익을 줄 것이다. 더욱이 병원이 들어섬으로써 시민들의 운동공간이 없어지지 않게끔 생활체육시설을 설치해 더욱 좋은 여건으로 조성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용역 실시 결과 또한 351개 병상, 16개 과 개설 등 적정 수준으로 나왔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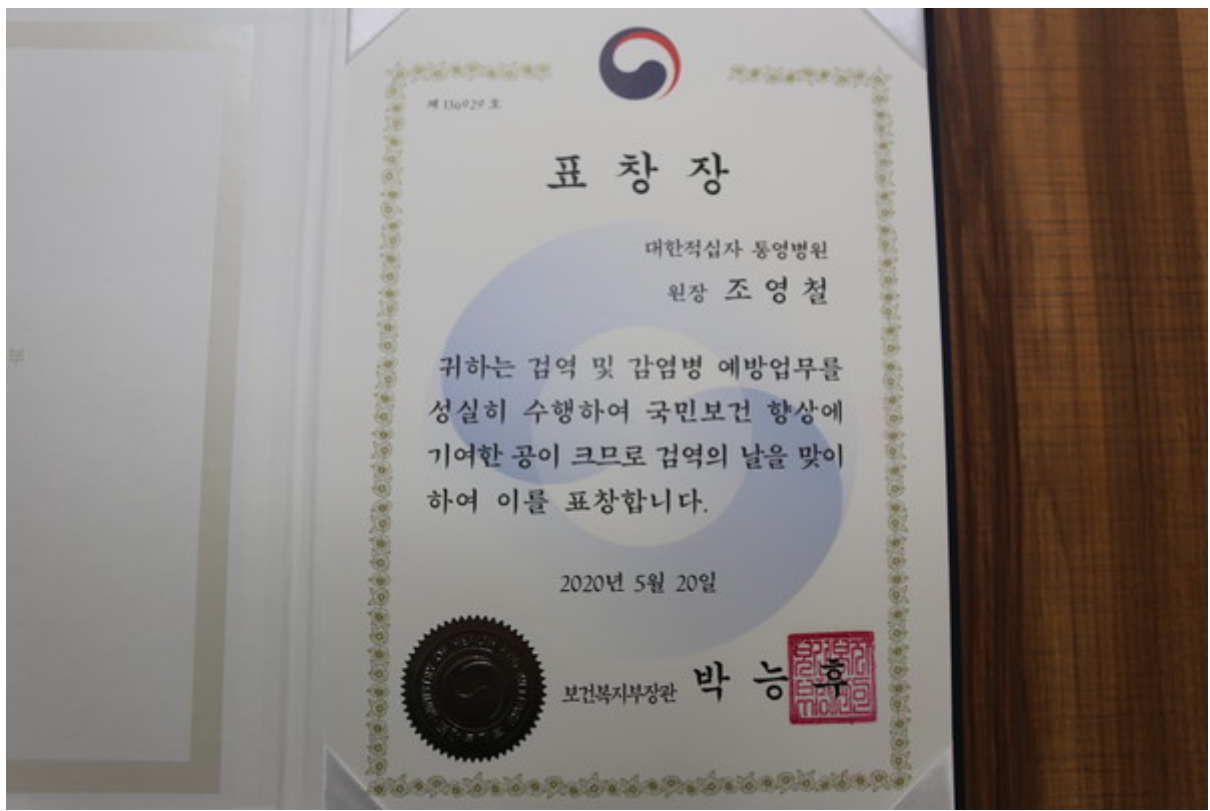
통영적십자병원은 오는 9월까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이전 실시설계 용역을 계약한 상황, 6.1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고 곧바로 이전을 추진할 예정이다.

조 원장은 “경남도가 전국에서 심뇌혈관 질환 사망률 1위다. 통영의 경우 농·어촌, 도서지역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통원치료 이동 편의성이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중증응급환자들이 병원에 내원하고, 또 정밀 검사를 위해 거점병원으로 이동하려면 이미 늦은 경우가 많다. 중증응급기관을 담당할 수 있는 병원이 반드시 통영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증응급기관의 역할을 이행하려면 충분한 공간과 적자분을 어느 정도 감수할 수 있는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 통영적십자병원이 지금처럼 작은 규모로 존재하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없을뿐더러 지역 책임의료기관을 통영에 유치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된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의료기관의 재정·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를 통해 심뇌혈관 센터 운영에 대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심뇌혈관 센터는 인구가 30만명 이상 돼야 기본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큰 적자를 감수하고서라도 인구 12만5천명 통영에 심뇌혈관 센터를 지을 수 있다는 건 그만큼 경남도가, 통영·거제·고성 권역이 의료복지가 필요한 곳임을 방증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이전신축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관심을 촉구했다. 조 원장은 “부지의 효용성을 놓고 일파만파 이야기가 오간다. 각 관계자들의 생각하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쉽게 결정할 수 없지만, 이제는 서둘러 추진해야 할 시점이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통영적십자병원은 앞으로도 통영시민, 특히 의료복지 취약계층 환자들을 위해 더욱 큰 역할을 맡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경훈 인턴기자 hannews@chol.com